

住宅의 実像과 虚像

崔 昌 奎 / 신진건축

의식주는 인간생활의 3대조건이라고들 한다. 건축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을 전공하고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건축이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들에게 건축의 주제는 주택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建築文化史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대서부터 중세까지 거의 종교건축·궁성·城塞들 뿐이고 주택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도 현대에 와서 겨우 공공건물이나 기타의 건물에 덤으로 끼워져 주택이 약간씩 등장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고대나 중세의 사람들은 궁성이나 성곽, 종교건물에서만 생활을 했을까? 그렇게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주택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建築文化史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 규모가 작고 간략했기에 장구한 시간까지 남아있지 못했다는 점이겠고 둘째, 그 당시 개인의 주택은 성실하지 못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궁성이나 종교건축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세째로는 건축시공면에서 사회적으로 전문화된 職工이 적어 대부분의 경우 가족 전원이 시공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아 빈약했거나 조잡했으리라 생각되는 점이며, 네째로는 사회상황이나 정치형태로 보아 일반 서민의 입장과 존재가 아주 미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렇듯 건축의 주제가 주택임에는 틀림 없으나 건축문화사에서는 대접을 못받아 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세나 현대건축문화사엔 개인의 주택이 제법 등장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보여진다. 또한 장래의 建築史에는 아마도 종교건물이나 행정건물보다 주택이 더욱 논의되고 평가되리라 믿어지는 것은, 近者 각국의 건축계가 서서히나마 건축의 原初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고 소규모의 주택일지라도 학문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다

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은 주택의 建築文化史에서의 위치라고나 할까, 그 비중을 건드려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택에게는 본질·특성·속성 같은 것도 있다. 주택을 말함에 있어 인류역사 시초부터 대자연의 준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보호해 온 장치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주택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외부의 환경이나 적에게서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을 했고 자손을 번식시켰으며 사고와 행동을 했고 크게는 인류의 역사가, 작게는 한 인생의 전부가 거기에 있었다. 따라서 인간생존의 수단이라고 할 생활의 場이었음도 알 수 있으나, 인간들이 주택의부에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주택은 서서히 그 본질이 희박해지고 오늘에 와서는 상품이나 재산으로까지 변질되어 왔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택은 생활의 3대요소에서 제외되는 느낌마저도 든다. 俗語로 “大都市에서는 居處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시골에서는 주택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되어 버렸다. 즉 상품이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함으로 해서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상물이 되고 말았다는 말일 것이다.

동물에게는 歸巢性이라는 본능이 있다고 한다. 인간도 역시 동물이므로 귀소성을 가지고 있으나 동물의 경우와는 그 범위가 달라, 약간 큰 귀소성이랄까 애향성으로 연결지어져 가서 가족에서 동족으로, 애향에서 조국으로, 귀소에서 애착으로 聯想되어 결국은 민족이나 조국애가 발단된다고 간파한 학자나 논문도 많은 것이다(아루스의 愛國論).

서구인들이 주택은 가정, 즉 Home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인간의 최소주거 단위가 주택이고 건물 자체보다는 생활을 더 중시하여 Home 으로 호칭하고 있



다고 생각된다.

낚시道의 순서에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즉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붕어낚시부터 해서 수년이 지나 낚시의 묘미나 요령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어려운 릴낚시·바다 낚시 또는 특종의 고기만을 낚는 낚시를 하다가 상당한 시간과 체험을 해 득하여 낚시의 삼매경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면 다시 붕어 낚시로 되돌아와서 낚시의 大家의 서열에 오른다는 말을 들었다.

건축에서도 낚시와 같은 점이 있다고 본다. 즉 건축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 건축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시작한다. 학교에서의 처음 설계과제도 대부분의 경우 간략한 주택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주택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체험과 자신을 얻게 되면 각종의 잡다한 건물이나 대규모의 건물을 만지게 되며 그렇게 해서 건축가로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다음 원숙한 노년기에 들어가면 역시 낚시道에서와 같이 다시 주택으로 돌아 간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건축의 大家들 중에서도 그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하듯 낚시든 건축이든 쉽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지만 사실은 붕어낚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보람있는 낚시임과 같이, 건축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야말로 건축의 진수이므로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며, 주택을 이해하고 소화·창작해 낼 때가 바로 건축가로서의 절정기요 보람·권위이자 건축의 전부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단 낚시나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여기에서 上記한 전제하에 주택이 건축을 떠나서 민족의 고유전통이나 인류문화라는 범주에까지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택이란 아무데나 마구 건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風土主義나 地域主義나 風水地理說이라는 난해한 학술적인 설명은 고사하고라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으로 해서 그렇고 건축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생활 환경의 창조라는 일이기에도 더욱 그러하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설비·장치·자금과 노력만 동원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곳이라도 전천후 쾌적한 주택을 건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건립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가능성이나 구체적 실시에는 또 다른 결정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역의 환경과 대자연의 환경이다.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아마 현대나 미래에도 건축에서 風土主義가 없어지지 않을 것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이렇듯 거의 不動의 조건들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극한환경으로 급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쾌적환경을 갈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투자와 시도를 거듭하고는 있지만 쾌적환경이 있다면 그 이상의 쾌적환경도 있을 것이며 또 그와 반대로 극한환경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쾌적환경에 대한 정열의 반만이라도 극한환경에 대해 투자·연구·훈련을 한다면 대형사고나 대량의 인명피해는 상당한 선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좋은 쾌적환경에서 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전문분야는 물론 대중이나 행정측에서도 이 문제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극한환경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다. 따라서 주택을 아무 곳에나 건립 못하는 까닭은 자연적인 극한상황을 무의식이나 예감같은 것

으로 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한 지역에 주택이 건립되어 오랜 생활을 하는 사이에 생활 체험과 문화가 그 지역에 정착해서 계승되고 축적되어 지역고유의 문화가 형성되면, 그것이 그 민족의 전통이나 문화가 되어 진다고 볼 때 민족의 전통이나 문화란 그 민족이 특정된 지역에 정착해서 생활한 時間性을 양성한 주택(건축)에 기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생존의 이유를 여러가지 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민족이 어느 지역에 어떤 인류문화를 구축했는가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최소의 생활단위이자 場인 주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주택에 대한 논리를 비약시켰다 해도 실제로 인간은 그동안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해, 주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은 인간이 바라는 방향이나 理想하는 방향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웬 일일까? 어쩌면 인간이 아직 알아내지 못한 어떤 보이지 않은 힘과 존재가 그렇게 운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택에 관한 변화의 과정도 예외없이 그렇하다. 우리의 주택의 현실은(특히 서울의 경우) 어떠한가. 기능이나 편리·실리·합리는 현대주택의 신조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기능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주택이 그리 흔치 않은 것도 이상한 점이다. 주택에서 그러한 요건들을 추구하면서도 말이다.

사실 절대조건처럼 되어 있는 편리·실리·합리란 어쩌면 추상적인 단어들이며, 그 한계나 기준 또한 없는 것들이다. 억지로 기준을 설정한다 해도 하나같이 경제성으로만 환산하여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서·인간성·낭만·위상적인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어느 저명한 건축가는 “주택에 있어서 편리라는 이름의 머슴은 행랑방에 있다가 서서히 안채로 들어와 나중에는 주인을 행랑으로 내쫓고 자기 주인행세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말대로 편리나 기능에게 우리의 주택을 빼앗긴 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증거로서 오늘날 우리는 규격화된 고층아파트(인간 공장 또는 인간 토끼장)에서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사육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사회적 지위나 경제능력의 표지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규격화·획일화의 量産은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격차를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 상실이라는 슬픈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상인과 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增財의 수단으로 생활의 場을 好材로 상거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혼란과 균열된 착각 속에서 대도시의 무주택자 수는 여전히 줄고 있지 않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주택 문제·교통문제·취학·취직·의료문제 등 제반문제점과 관련된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책이나 묘안이 많을 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다.

주택문 제에서 대지대여 자금용자라는 案은 방법은 필지언정 명분이 없다. 또는 명분은 있으나 방법이 없다. 여기에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즉 무주택자가 자기 대지나 자금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될리 없을 것이며, 대지를 대여 받고 자금을 융자받으려 해도 융자대행기관의 명분이나 행정적 방법을 막는다. 그것은 무주택자이니까 융자받을 담보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수가 국력이나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데는 어찌 할 것인가.

병원문제만 해도 많은 종합병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과 노력을

주택의 위생시설이나 식품관리면에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사실 병원을 병의 사전예 방에다 주력한다면 병원 부족이라는 문제가 약간은 해소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병원이란 약도 주고 병도 주는 이윤 추구만을 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자율이 적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병원의 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대중의 위생관념과 주택의 위생시설의 개선이 그 공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시환경, 즉 생활환경의 오염(공해문제)에 대해서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병원부족의 문제해결에 서광이 비칠 것이며 보다는 인간 주생활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택이란 物的이 아닌, 즉 感傷的인 측면도 있다. “文化라는 범주 속에서의 주택은 그 속에서 2대나 3대 혹은 그 이상의 代의 인간들의 生과 死, 이에 따르는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이미 문화로서의 주택의 부활은 몹시 어렵게 되었다.”라고 일본의 모노익장의 말은 몹시도 공감어는 말이다.

필자는 실향민의 한사람이다. 실향민이기에 고향이 더욱 그림고 유년기의 고향 농촌풍경을 회상하면 반드시 필자의 生家가 뚜렷하게 떠오르곤 한다. 건물 자체보다는 가구며 뜰, 우물·외양간 등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十余代를 이어온 古家인 고향집은 눈 감고도 그럴 수가 있다. 어머님의 음성이나 조부님의 기침소리도 들려온다. 동리사람들의 발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주택이란 이렇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며 가풍과 가훈이 엄연히 이어져 올 때 문화 속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년에 두 세번씩 이사하는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과연 주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은 행복을 무한히 갈구하는 동물이다. 그 행복이라는 조건 속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다는 향도 있고 체념해야 한다는 향도 있다. 유년기의 生家에서의 추억이 모두 아름다우니까 필자는 행복한가, 현재의 6층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체념하고 있으니 그래서 행복한가?

건축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필자는 과연 남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주택을 설계해 줄 자신이 있는가 자문해 보기도 한다. 현대건축은 한때 인간의 고향인 주택을 망각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망각의 슬픔을 참을 길이 없어 復古의 회귀성을 내세운 적도 있었고 공간의 被護性에 신뢰를 가진 적도 있었다. 被護된 내부의 고향엔 安住性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향의 외부세계는 적대적이고 험박적이며 도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그러나 인간이 걸어온 긴 역사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따라서 인간은 주택이란 안주처가 필요했고 그 속에서 團樂을 즐겼으며 인생을 향유해 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母性的인 마음의 고향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막상 우리에게 닥아 올 불확정한 미래가 무섭기만 하다.

住宅이란 결국 인간이 생활하면서 사는 곳이다. 따라서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야 어찌 주택을 건축하고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본질도 아닌 기능이나 편리가 중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속성과 타성과 습성은 확실한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간의 편에 설 것이다. 기술이나 기계 편에 서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뿐이다.

화창한 사월이 가고 싱그러운 오월이 왔다. 이러한 자연의 환경이 인간 생활의 최적환경일지도 모른다.